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요약

- 감염병리스크는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초래하고, 타 재난과 달리 세계 재보험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동 리스크 인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사협력력이 불가피한 영역임
 - 감염병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단기에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 및 분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짐
 - 또한, 감염병의 주요리스크는 기업휴지손해로, 주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 및 환경요소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이 어려움
- 지난 1년간 미국·유럽은 미래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하여 다양한 공사협력 기업보장프로그램을 논의하였는데, 대부분 각국의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함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자국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테러로 인한 기업휴지손해가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NDBI)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임
- 미국·유럽의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첫째,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큼
 - 둘째,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관건인 바, 보험회사가 보유 또는 부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고정요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
 - 셋째,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지수형 보상방식을 적용함
-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도,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각국의 리스크 파이낸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리스크 파이낸싱 방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지원, 저리융자 방식의 정책수단이 사용되었으나, 미래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다만, 감염병리스크는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세계 재보험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동 리스크 인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사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임
 - 감염병은 단기에 (재)보험산업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는 거대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테러 등과 함께 누적리스크(Accumulation risk)로 분류됨
 - 특히, 감염병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단기에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 및 분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짐¹⁾
 - 반면, 자연재해, 테러 등은 누적리스크일지라도 손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 및 분산이 가능함
 - 또한, 감염병의 주요리스크는 기업휴지손해로, 주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 및 환경요소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이 어려움²⁾
 - 반면, 자연재해리스크는 자본시장의 기존 투자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보험연계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자연재해리스크 인수에 활용할 수 있음³⁾
- 지난 1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래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하여 다양한 공사협력 기업보장프로그램이 논의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

가. 미국

- 1) Richter, A., Wilson T. C.(2020), "Covid-19: Implications for Insurer Risk Management and the Insurability of Pandemic Risk", *The Geneva Risk and Insurance Review*, 45, pp. 171~199
- 2)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작은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가짐
- 3) 세계 재보험시장의 제한된 담보력으로 인해 거대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세계 재보험시장은 경성화와 연성화를 오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을 가졌음. 그러나 최근 보험연계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이 보험위험 인수에 활용됨에 따라 언더라이팅 사이클의 진폭이나 주기가 짧아짐.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송윤아·전성주(2013), 「전통적 재보험의 한계와 보험연계증권의 성장」,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미국은 현재까지 감염병리스크 재보험프로그램(PRRP), 사업계속보장프로그램(BCPP), 기업휴지프로그램(BIP), 감염병 재보험(Pandemic Re) 등 4가지 기업보장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는데, PRRP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업계가 제안함
 - 2020년 5월, Carolyn Maloney 하원의원은 재무부내 감염병리스크 재보험프로그램(PRRP: Pandemic Risk Reinsurance Program)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리스크보험법(PRIA: Pandemic Risk Insurance Act)을 발의함
 - 미국 주요 보험협회는 사업계속보장프로그램(BCPP: Business Continuity Protection Program)을 공동으로 제안함⁴⁾
 - 대형 재물보험회사인 Chubb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휴지프로그램(BIP: Business Interruption Program)과 대기업업을 위한 감염병 재보험(Pandemic Re)를 제안함

- 감염병리스크 재보험프로그램 PRRP는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위험을 보험회사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테러위험 보험프로그램(TRIP: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을 벤치마킹함
 - PRRP 참여 보험회사는 감염병을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추가하여 일반적인 기업휴지담보와 동일한 보장을 하며,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대해서만 부과됨
 - 통상 미국에서 판매되는 기업휴지담보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상실수익, 임대료, 공과금 등을 보장하고, 조업중단 시 인건비는 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인건비를 보장하지 않음
 - PRRP의 연간 보장한도는 7,500억 달러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중 전년도 원수경과보험료의 5%까지 전액 부담하고 이를 넘어서는 초과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연방정부가 각각 5%와 95%의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함

- 사업계속보장프로그램 BCPP는 연방정부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위험을 보유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판매·관리·손해사정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홍수보험프로그램(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벤치마킹함
 - 동 프로그램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시 3개월간 인건비 및 운영비의 최대 80%를 보장하며, 기업은 보험금을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홍수보험프로그램 NFIP와 마찬가지로,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대가로 판매·관리·손해사정을 담당하며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업종·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은 고정요율이 적용됨
 - 보상은 지수형 방식으로, 감염병에 따른 연방정부의 봉쇄령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약정된 보험금이 손해사정 없이 즉시 지급됨⁵⁾

- 기업휴지프로그램 BIP는 종업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감염병에 따른 기업휴지위험을 보험회사와 연방정부가

4) 상호보험협회(NAMIC: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재물보험협회(APCIA: 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보험대리점·중개사협회(Independent Insurance Agents&Brokers of America: Big "I")

5) 지수형 보상은 객관적인 지수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정액 보상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보상방식의 보험상품을 인덱스보험(Index insurance) 또는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라고 함

공동으로 인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함⁶⁾

- BIP는 산재보험 또는 사업주보험에 감염병에 따른 기업휴지담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인수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종업원 수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동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한해 부과됨
-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시 3개월간 인건비를 보장하되,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추가 보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수형 보상방식으로, 정부가 감염병에 따른 봉쇄령 및 기업활동 중단 명령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됨⁷⁾
- 프로그램 총 한도는 7,500억 달러로, 보험금 2,500억 달러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금의 6% 또는 최대 150억 달러를 보험업계가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정부가 지급하며, 2,500억 달러 초과 구간에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100% 부담함
 - 보험업계 부담금 150억 달러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사가 부담하며, 보험업계 부담분이 향후 20년 후에 300억 달러(보험금의 12%)가 되도록 매해 인상됨

○ 감염병 재보험(Pandemic Re)은 종업원 500인 초과 대기업의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위험을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없이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지불함

- 감염병 기업휴지담보는 기존 기업보험에 추가되는 형태로 제공되며,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시 계약 당 최대 5,000만 달러 한도의 기업 운영비를 보장함
- 프로그램 총 한도는 4,000억 달러로, 연방정부와 보험업계가 각각 3,850억 달러, 150억 달러를 부담하고, 보험업계의 부담금을 10년 후 300억 달러까지 상향함
- 보험회사와 정부는 각각 전술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5%, 95%를 공동 부담함
- PRRP와 BIP와 달리,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됨

〈표 1〉 미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안

구분	PRRP	BCPP	감염병 기업휴지 프로그램	
			BIP	Pandemic Re
제안자	하원의원	보험협회	보험회사(Chubb)	보험회사(Chubb)
계약자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종업원 5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	종업원 500인 초과 규모의 대기업

6) Chubb(2020),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Program"

7)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재무부가 참여보험회사들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담분을 보충하며, 기업은 감염병 기업휴지담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향후 감염병에 따른 기업휴지손실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함

〈표 1〉 계속

구분		PRRP	BCPP	감염병 기업휴지 프로그램	
				BIP	Pandemic Re
보험금 부담	정부	보험회사 공제금 초과 보험금의 95% (≒7,006억 달러)	보험금의 100%	7,350억 달러	3,850억 달러
	보험 업계	공제금+공제금 초과 보험금의 5% (≒494억 달러) ¹⁾	없음	150억 달러→ 매년 증액, 20년 후 300억 달러	150억 달러→ 5년 후부터 증액, 10년 후 300억 달러
	한도	7,500억 달러 ²⁾	언급 없음	7,500억 달러	4,000억 달러
개별 보험회사 부담		공제금(손해보험 전년도 원수경과보험료의 5%) +공제금 초과 보험금의 5%	없음	시장점유율 비례 할당부담금 내에서 보험금의 6%	보험금의 5%
보험료		보험회사 보유위험에 한해 보험료 책정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	보험회사 보유위험에 한해 보험료 책정	보험가입금액 및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
인수의무		인수거절 불가 ³⁾	인수거절 불가 ³⁾	인수거절 불가	시장자율
가입의무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거절의사 표시가능	자발적 참여
손해사정		전통적 방식	지수형 방식	지수형 방식	전통적 방식
보장내용		표준 기업휴지담보의 보장내용(상실수익, 임대료, 공과금)	3개월간 인건비 및 운영비 80%	3개월간 인건비	3개월간 비용, 최대 5,000만 달러

주: 1) 2019년 손해보험 원수경과보험료를 이용하여 공제금을 계산함
 2) 손해액이 7,5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지원할 수 있음
 3) 보험회사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유럽

○ 프랑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위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CATEX(Catastrophes Exceptionnelles) 프로젝트를 제안함

- CATEX 프로젝트⁸⁾는 국영재보험사 CCR(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이 재보험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보험업계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를 인수하기 위해 20억 유로의 담보력을 제공함⁹⁾

8) 2020년 4월, 프랑스 재무부는 대재해에 대비한 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였고, 동 작업반에서 보험협회 FFA(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가 CATEX 프로젝트를 제안함

- 프랑스 소재 모든 기업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감염병 기업휴지담보를 의무특약 형태로 제공하며,¹⁰⁾ 정부의 봉쇄조치로 기업활동 중단 시, 업종별 매출손실액의 일정비율로 산출된 보험금이 기업당 또는 사고당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급됨
 - 지수형 보상방식으로, 감염병 선언과 함께 봉쇄조치가 있고, 매출액이 동 기간 50% 이상, 그리고 전년 대비 8% 이상 감소한 경우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됨
 - 보험료는 기업의 매출액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되, 매출액 10만 유로 미만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고정요율이며, 매출액 2천만 유로 초과 기업은 매출액 2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한이 적용됨
- 영국 보험업계는 테러보험 전용 재보험회사 Pool Re를 벤치마킹한 Pandemic Re 설립을 제안하였고, Lloyd's는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장기 상품 공급을 제안함
- Pool Re는 테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둔 상호재보험사로서, 재무성은 Pool Re와 재재보험 협정을 체결하여 Pool Re의 기금 소진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영국 보험업계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Pandemic Re 설립을 제안함
 - 테러보험의 경우 Pool Re가 재무성에 재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재무성이 지급한 보험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재재보험사라기보다는 유동성 제공자의 기능을 담당함
 - Lloyd's는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Recover Re를 설립하여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NDBI: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를 보장하는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함
 - Recover Re의 주요 재원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정부는 Recover Re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설립 초기, 또는 Recover Re가 지급불능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
- 한편 독일 보험협회(GDV) 또한 2020년 6월 기업의 감염병리스크를 인수할 기구를 설립하되, 동 기구의 담보력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3. 시사점

-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대체로 각국의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 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함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자국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테러로 인한 기업휴지손해가 NDBI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임¹¹⁾

9) FFA(2020), "The FFA Details Its CATEX Project", <https://www.ffa-assurance.fr/en/news/ffa-details-its-catex-project>

10) CATEX 프로젝트 초기안은 초·중소기업(VSEs and SMEs)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업규모 및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11)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17년 Manchester and London Bridge 테러로 인해 인근 Borough Market 상인들의 사업장 진입이 11일

-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큼
 - 감염병은 보험산업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는 거대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누적리스크와 달리 보험회사가 감염병리스크 인수에 세계 재보험시장 또는 자본시장의 담보력을 활용할 수도 없음
 - 감염병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가 어려움
 - 또한 감염병리스크와 자본시장의 기존 투자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 투자자가 감염병 관련 보험연계증권에 투자할 유인이 낮음
 - 이에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정부의 상당한 보험금 부담을 전제할 수밖에 없음

- 둘째,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관건인 바, 보험회사가 보유 또는 부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고정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
 - 기업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고, 무보험자에 대한 무상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공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미국의 테러보험 TRIP의 가입률은 2003년 27%에서 2017년 78%로 증가하였는데, 그 성공요인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에 있음
 - 테러담보 보험료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가입금액 100만 달러당 19~49달러로, 재물보험 비용의 약 3~5% 수준임

- 셋째,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수형 보상방식을 적용함
 - 기업 활동중단에 따른 자금수요 급증,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자금병목현상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지수형 보상방식은 지수를 구성하는 기준들의 측정이 빠르고, 해당 기업의 실제손해액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이점을 가짐
 - 반면, 전통적 손해사정방식은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분쟁의 여지가 있음

-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도,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동안 금지되어 상인들의 고정비 지출과 수익상실이 발생함